



▲ 제약/바이오
Analyst 이태영
02. 6098-6658
taeyoung.lee@meritz.co.kr

Meritz 제약/바이오 Weekly

청출어람(青出於藍)을 기대하며



[TY's Pick] - JPM 헬스케어컨퍼런스 Key Takeaways

JPM 헬스케어컨퍼런스 발표기업 통해 살펴본 국내 기업 투자 아이디어.

- 1) Celgene: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제약사. 임상시험 중단으로 개발 보류되었던 파이프라인을 놓치지 않고 최대 7.7조원 투자. 해당 물질의 '22년 예상 시장 규모 약 4.4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계약금만 1.3조원 지불. 따라서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인 회사에 주목
- 2) Ignyta: Roche가 주당 27달러(시가총액 약 1.9조원)에 합병 결정한 분자진단 기반 정밀의약품 개발업체. 주력 파이프라인인 Entrectinib은 BBB 통과. '18-'19년 사이에 FDA, EMA에 허가 신청예정. 관련 파이프라인 한미약품, 오스코텍(유한양행) 보유
- 3) Coherus: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자신감 피력. 그 이유로 i) 항암제의 압축된 시장 구조 때문에 구매 과정이 단순한 점, ii) 개정된 저가 의약품 관련 규칙(340B)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유리한 보험 약가 책정 가능해진 점, iii) 경쟁자들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밝힘.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국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빠른 미국 시장 진출 역시 기대 할 수 있음. 2018년 미국 허가 예정 후보물질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있음

[그 약의 SWOT] - Celgene의 미래를 책임질 레볼리미드

Celgene이 개발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혈액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인 다발성 골수종의 1차 치료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후발 약물들과의 병용요법에서 뼈대(Backbone)약물로 쓰임. 향후 면역항암제들과도 병용될 전망. 그에 따라 '22년 매출 Top5 예상 약물 2위 차지. 특정 질환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물의 중요성 알 수 있음

[금주의 탐방] - 대한약품(KQ:023910)

매출의 80%이상이 수액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대표 수액 제조 및 판매업체. 국내 수액시장은 인구증가,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 다만 정부에서 가격을 주도하는 수액의 특성상 정책 변화에 민감. 최근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도입에 따라 적정 약가 보존. 여기에 공장 설비 자동화에 투자하여 원가율 개선. 향후 이와 같은 수준의 투자 지속할 것. 올해 전년 대비 약 15% 정도 성장하는 매출액 1,700 억원, 여기에 20% 초반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을 목표

[TY's Pick]

JPM 헬스케어컨퍼런스 Key Takeaways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된 제 36회 JP Morgan 헬스케어컨퍼런스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지난 2017년의 성과를 돌아봄과 동시에 올해, 나아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이다. 매우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를 다뤄볼 'Meritz 제약/바이오 Weekly'의 첫 번째 순서로 JP Morgan 헬스케어컨퍼런스에서의 주요 이슈를 다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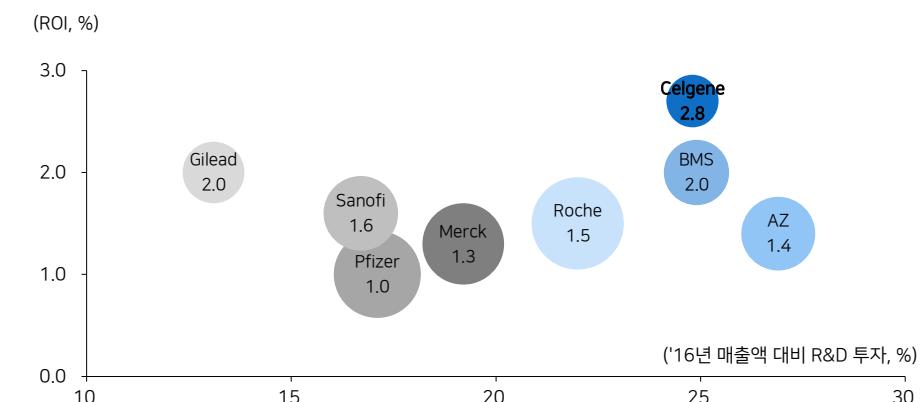
70 억달러 계약으로 화려한 축포를 쏘아 올린 Celgene

Celgene

(Mkt. Cap. : 834.6 억달러)

Evaluate Pharma가 지난 2017년 선정한 '2022년 예상 매출 Top 50 의약품'에서 키트루다(Keytruda;Merck)와 옵디보(Opdivo;BMS)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레볼리미드(Revlimid)를 보유한 회사.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의 선두 주자.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Biotech. 모두 Celgene을 지칭하는 수식어다. 특히 Celgene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때문에 어떠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는지 여부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다.

그림1 주요 글로벌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과 그 효율



주: 원의 크기는 R&D 투자 금액(십억달러)

자료: EvaluatePharma(2017),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초소형 바이오텍에 최대
70 억달러 투자 단행

컨퍼런스 첫날인 1월 8일 Celgene은 Impact Biomedicines라는 비상장 초소형 바이오텍을 초기계약금(upfront) 11억달러를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이후 허가 여부 및 판매량에 따라 최대 59억달러의 마일스톤을 추가 지급하는 총 7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통해 인수한다고 밝혔다. Impact Biomedicines는 지난 '16년 Sanofi가 개발하던 Fedratinib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 받으며 시작한 단일 파이프라인 스타트업이다. 이후 '17년 10월 2,250만달러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Sanofi가 개발을 포기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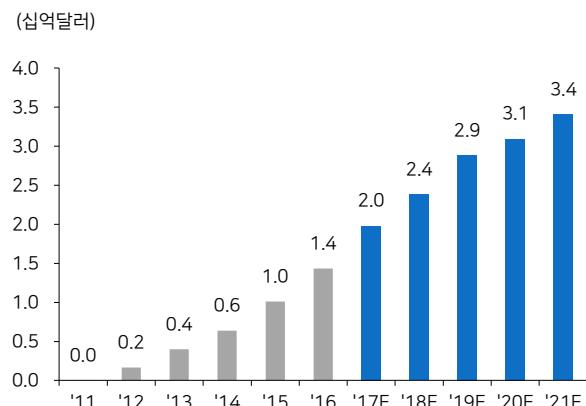
Fedratinib 인수

Fedratinib은 JAK2 kinase에 대한 높은 선택성을 가진 저해제로, 경구용 화학합성의약품이다. 총 8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의 임상시험에 활용되었으며,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골수섬유증(Myelofibrosis;MF)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3상(JAKARTA-1)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FDA, EMA, PM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투여 받은 경험이 있는 887명의 환자 중 8명에서 베르니케뇌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FDA로부터 임상 중단 명령을 받아 Sanofi가 개발을 포기하였으나 최근 FDA가 임상 중단 명령을 해제했다.

골수섬유증 분야로 자사의
제품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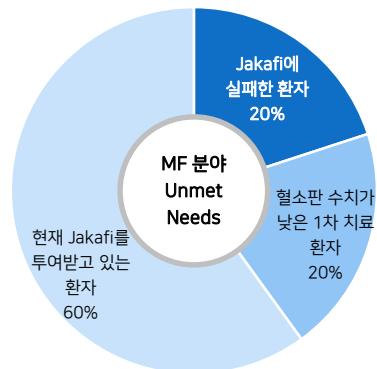
Celgene은 해당 조치는 성급한(prematurely) 것이었으며, Fedratinib이 기존의 치료법(Jakafi;Incyte)에 적합하지 않거나 저항성을 가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가 개발중인 luspatercept 혹은 다른 파이프라인과 함께 골수섬유증 분야의 리더쉽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Celgene은 FDA에 Fedratinib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2018년 중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 역시 발표했다.

그림2 기존 치료제인 Incyte의 Jakafi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Cortelli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골수섬유증 시장의 Unmet Needs



자료: Celgen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시사점

- 1) 꺼진 불도 다시 봐야
- 2) 후기 파이프라인은 높은 가치를 내포

이 계약을 통해 두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있는 제약사가 있다. 이미 Celgene은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이용한 신약 재창출(Drug re-positioning)로 유명한 회사다. 앞서 임상 시험 중단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던 파이프라인을 Impact가 발굴했고 Celgene은 이를 놓치지 않고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2)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개발 후기단계에 접어들수록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높아진다. Celgene이 예상한 2022년 골수섬유증 시장 규모는 약 4조원임에도 불구하고 Fedratinib의 판권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한 초기 계약금만 약 1.3조원이다. 상기 두 조건은 모두 국내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한미약품, 신라젠, 바이오메드, 에이치엘비, 메지온 등)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이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폐암 표적 치료제의 신화는 계속된다. – Ignyta

Ignyta

(Mkt. Cap. : 17.9 억달러)

Ignyta는 지난 '17년 12월 Roche가 주당 27달러(시가총액 17억달러)에 합병을 결정한 분자진단 기반 정밀의약품(Precision medicine) 개발 업체다. 현재 합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Ignyta의 합병 발표 전일 종가는 15.55달러로 Roche는 이 가격대비 약 74%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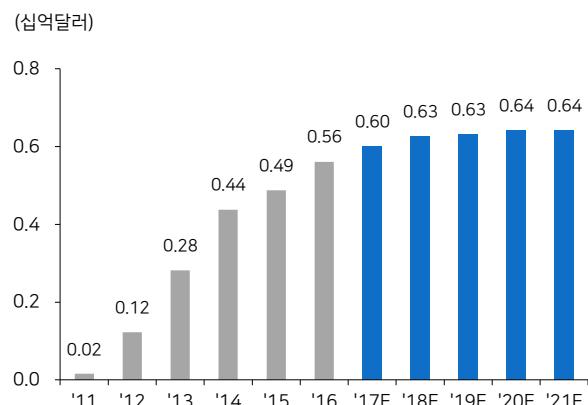
ROS1 NSCLC를 Target

주력 파이프라인은 Entrectinib이라는 경구용 표적항암제다. 비소세포폐암(NSCLC)을 야기하는 ROS1 fusion 변이와 고형암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NTRK fusion 변이를 타깃으로 한다. 현재 허가를 위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성공할 경우 FDA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뇌 전이 환자에도 효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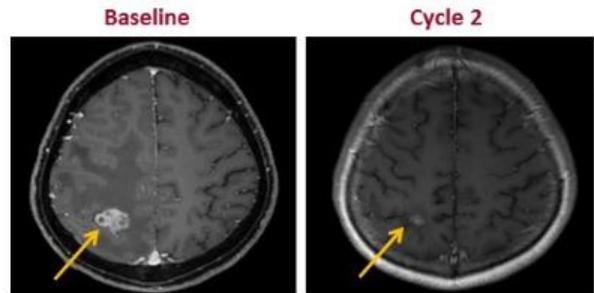
특히 Entrectinib의 경우 중추신경계까지 약물이 분포될 수 있다. 즉, BBB를 통과 한다. 기존 ROS1 fusion 변이 환자 대상 약물은(Xalkori;Pfizer) 중추신경계 전이 환자에 대해 다소 부족한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Entrectinib은 임상시험에서 83%의 반응율을 보였다. Ignyta는 임상 결과에 따라 '18년에서 '19년 사이에 FDA와 EMA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된 국내 파이프라인으로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와 Pozotinib,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YH25448 등이 있다.

그림4 기존 치료제인 Pfizer의 Xalkori 매출 추이 및 전망



자료: Cortellis,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뇌 전이 NSCLC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



자료: Ignyta,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면역항암제+세포독성항암제 병용에 도움이 되는 보조요법제의 가치는? – G1 Therapeutics

G1 Therapeutics

Mkt. Cap. : 6.5 억달러

G1 Therapeutics는 세포독성항암제를 투여 받았을 경우 발생 되는 면역 억제 효과로부터 면역세포를 보호하는(Myelopreservation) 치료제인 Trilaciclib(CDK 4/6 저해제)을 개발한다. 또한 세포독성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경우 면역 억제 효과에 따른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낮아질 우려 역시 제거해주는 (Enhancing efficacy of chemo/checkpoint combination) 방향의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국내 파이프라인으로는 제넥신의 Hyleukin이 있다.

그림6 G1 Therapeutics 종가 추이



자료: Datastream,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강력한 추격자 Amgen

Amgen

(Mkt. Cap. : 1,343.2 억달러)

Amgen은 글로벌 판매 1위 의약품인 Humira의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가장 먼저 허가 받았다. 현재 허가를 획득한 파이프라인은 이외에도 Humira 바이오시밀러(유럽), Avastin 바이오시밀러(미국) 등이 있으며, Avastin 바이오시밀러(유럽)이 CHMP로부터 긍정의견을 받아 허가에 임박해 있고, Herceptin 바이오시밀러(미국, 유럽)가 허가를 제출한 상태다. Amgen은 컨퍼런스에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현황과 향후 개발 예정인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

표1 Amgen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후보물질/약물	상태	오리지널	오리지널 '17년 매출(십억원)
AMJEVITA	'18.10 유럽 출시 / '23 미국 출시	휴미라	19
MVASI/ABP215	미국 허가/유럽 긍정의견	아바스틴	7
ABP980	미국, 유럽 허가신청	허셉틴	7
ABP710	임상 3상	레미케이드	7
ABP798	임상 3상	리툭산	7
ABP959	임상 1상	솔리리스	3
ABP494	공정 개발	얼비툭스	2
Molecules #8~#10	공정 개발		12
Total			65

자료: Amge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자신감 - Coherus

Coherus

(Mkt. Cap. : 7.9 억달러)

Coherus는 호중구감소증 치료제(뉴라스타;Amgen)의 바이오시밀러인 CHS-1701,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CHS-1420 등 여러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이다. 지난 '17년 6월 면역원성 유발에 대한 제조상의 이유로 FDA로부터 허가 신청을 반려 당했다.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완료하였고, 미국 허가당국에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과 동시에 EMA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승인에 약 6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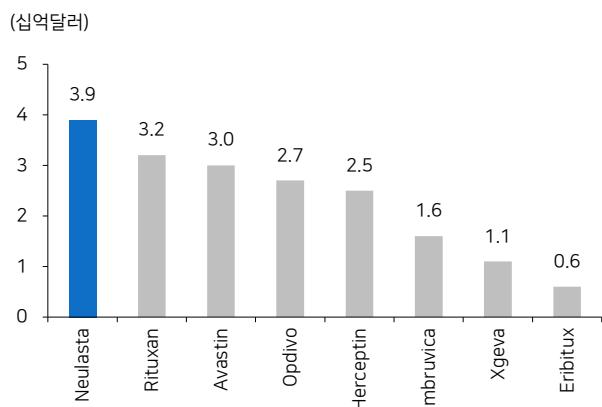
340B 적용 병원의 약가 정책

오리지널: ASP-ASP*22.5%

바이오시밀러: ASP+AS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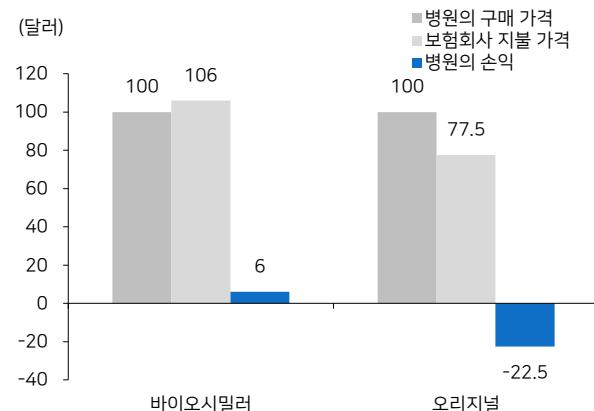
Coherus는 허가 이후 CHS-1701의 빠른 시장 진출을 자신했다. 그 이유로는 1) 7개의 GPO, 400여개의 IDN, 2,000여개의 Clinic에 불과한 압축된 시장 때문에 구매 과정이 단순한 점, 2) 새롭게 개정된 바이오시밀러 코드 부여 정책으로 개별적인 가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점, 3) 340B 적용 병원은 뉴라스타의 미국 매출의 약 29%를 차지하는데, 개정된 340B 규칙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대로 평균가격(ASP)에 6%를 가산해 약가가 책정되는 반면, 오리지널은 평균 가격에 22.5%를 차감해 약가를 책정하기로 한 점 4) 경쟁자들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밝혔다. 이러한 자신감을 통해 국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의 빠른 시장 진출 역시 기대 할 수 있다. 2018년 미국 허가 예정인 후보물질은 리툭산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있다.

그림7 '16년 항암 관련 치료제별 매출액



자료: Coherus,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340B 병원의 오리지널/시밀러 사용에 따른 손익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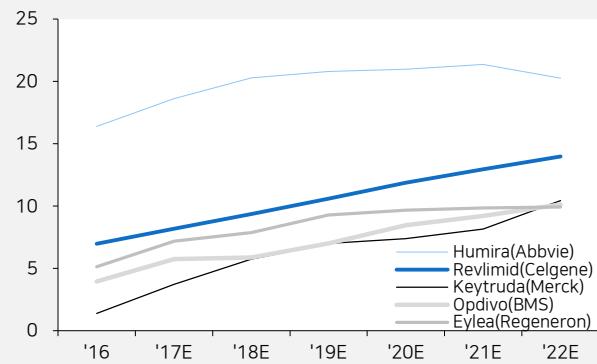
자료: Coherus,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그 약의 SWOT] Celgene의 미래를 책임질 레вл리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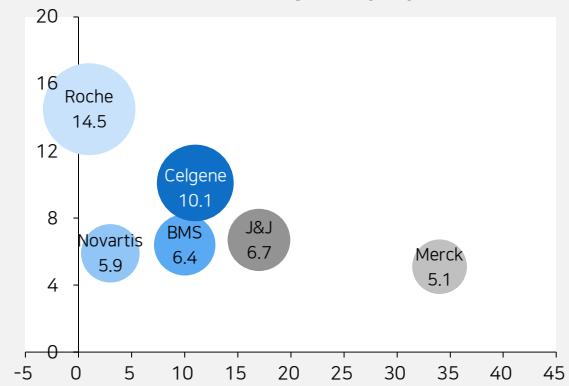
Strengths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을 주도하는 탈리도마이드 유사체. 기존 탈리도마이드 대비 줄림, 신경통, 변비 등의 부작용이 적음 다발성골수종의 1, 2, 3차 치료, MDS 및 외투세포림프종 등 넓은 적용증 범위 강력한 단독, 병용 임상 결과, 새롭게 허가받은 치료제들의 상당수가 revlimid와 병용요법으로 임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리도마이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기형발생, 심각한 호중구감소증 등 대한 블랙박스 경고가 첨부문서에 포함 급성골수성백혈병, MDS 등의 2차 발암 가능성 있음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대상 임상에서 사망을 야기하는 부작용 발생 IFM-2005 임상 3상에 따르면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생존률을 개선시키지 못함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발성골수종은 혈액암 중에서 두 번째로 흔한 질환. 전세계에서 연간 114,000명이 새롭게 진단받음 주사제인 벨케이드(J&J)대비 투여편의성 및 가격 측면에서 유리. 또한 벨케이드를 투여할 수 없는 노인환자에 사용 가능 전문가들은 새롭게 진단받은 다발성골수종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매년 13,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MDS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성 발암을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 사용에 대한 우려 있음 미국에서 특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유지시 '27년 만료) 유럽의 특허는 '22년 만료 예정 새로운 계열의 치료제들에 의한 잠재적인 경쟁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대상 임상에서 보인 부족한 임상 결과는 적응증 확대 가능성을 낮추었음

Figure & Chart – 면역 항암제가 최고? 적어도 2022년까지는 아니다

(십억달러) <2022년 예상 매출 Top 5 의약품>



<2022년 항암제 시장 전망>



자료: Cortellis, EvaluatePharma,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질환 치료 뼈대 약물이 갖는 위상

레вл리미드는 Celgene[®] 개발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다. 혈액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인 다발성골수종의 1차 치료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후발 약물들과의 병용요법에서 뼈대(Backbone) 약물로 쓰인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항암제 복용에 의한 2차 발암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다발성골수종 치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요소다. 때문에 향후 면역항암제들과도 병용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전문가들은 2022년 매출 Top5 예상 약물 2위를 레вл리미드가 차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정 질환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물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NEWS] 국내 및 글로벌 주요 뉴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신약개발 활성화 생태계 마련할 것” (01.04)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계 신년회에 참석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마련에 노력 할 것임을 피력했다.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제, 금융지원, 의약품 관련 인허가 및 약가 제도 개선 등 신약개발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미 지난달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제약산업 육성에 관심을 밝힌 상태다.

“화이자, 알츠하이머·파킨슨병 신약개발 중단” (01.08)

연합뉴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지만, 성공 가능성성이 낮은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동안 화이자는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신약 임상시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었다. 해당 연구인력 300명 가량은 구조조정 될 예정이다. WSJ은 “다른 제약사들이 알츠하이머병 관련 신약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난제”라고 전했다.

세엘진, ‘페드라티닙’ 개발사 임펙트 전격 인수 (01.08)

의약뉴스

미국의 바이오제약기업 세엘진(Celgene)이 혈액학적 악성종양(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에 대한 치료제(Fedratinib)를 개발 중인 임펙트 바이오메디슨(Impact Biomedicines)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가는 계약금액 약 11억달러, 차후 개발과정에 따라 최대 12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페드라티닙(Fedratinib)은 앞서 사노피가 개발을 진행하다 임상시험 도중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13년 FDA에서 임상 중단 조치를 당했다. 이 조치는 작년 8월 해제되었으며, 이 치료제 발견에 참여했던 존 후드 박사가 임펙트를 설립하면서 재개되었다.

2018년 美FDA 문턱 넘을 국내신약 6개 추정 (01.09)

데일리메디뉴스

올해 FDA 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국내 의약품은 6개 정도 인 것으로 확인된다. 셀트리온(트룩시마, 허쥬마)과 삼성바이오에피스(임랄디, 온트루잔트)가 2개씩, 녹십자(MG-SN)와 SK바이오팜(SKL-N05), 대웅제약(나보타)이 각각 1개씩 신청후 대기 중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FDA 의약품 허가 승인에 13~14개월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차의료발전특별법 입법예고 반대 봇물 (01.11)

헬스포커스뉴스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2일에 발의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반대가 뜨겁다. 의사협회와 지역사회간호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환영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은 일차의료의 전달체계 개선,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등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대부분은 이미 동네병원에서 안되면 종합병원으로 가기 마련인데, 굳이 일차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세금 낭비라는 반대 의견이 90% 이상 이었다.

[국내] 주간 동향

Coverage 금주 동향

Name	적정주가	종가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1W	1M	YTD
셀트리온	260,000	341,500	41,890.6	28.0	69.4	54.5
한미약품	660,000	620,000	6,921.3	3.7	10.9	6.2
유한양행	280,000	227,000	2,648.2	4.4	11.7	3.7
휴젤	580,000	592,000	2,550.2	6.3	24.7	5.8
종근당	157,000	149,000	1,402.0	7.2	17.8	7.6
에스티팜	43,000	37,350	696.8	15.1	15.8	13.0
보령제약	45,000	49,500	437.6	1.2	14.3	3.1
대원제약	25,000	22,150	403.2	1.1	5.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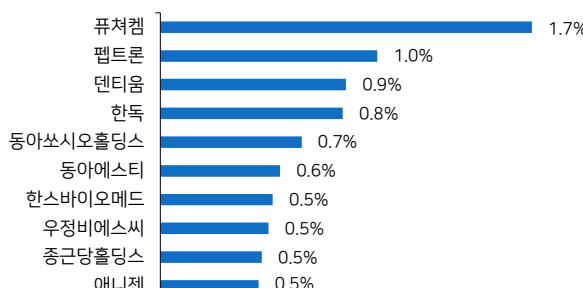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1주간 수익률 Top&Bottom 3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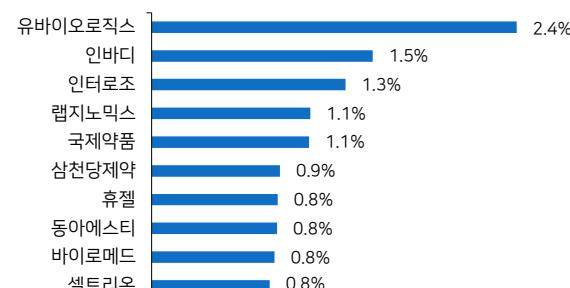
종목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Performance(%)			5일 누적 기관	순매수 외국인	대금(백만원)	개인
			1W	1M	YTD				
현대약품	6,050	194	53.8%	60.5%	59.4%	-2,678	-279	6,562	
한올바이오파마	39,000	2,037	48.0%	191.0%	59.8%	-75	-4,273	4,699	
셀트리온제약	89,500	2,984	39.8%	52.4%	46.2%	1,425	6,883	-8,013	
테라젠이텍스	12,250	372	-18.1%	69.0%	11.9%	-1,673	-315	2,751	
피씨엘	14,050	125	-14.9%	2.2%	-19.0%	-7	-100	227	
씨케이에이치	868	96	-8.4%	-13.2%	-1.5%	0	-853	853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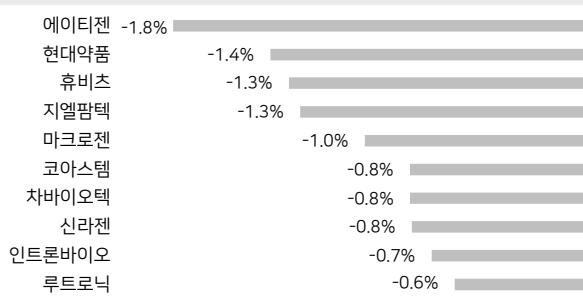
기관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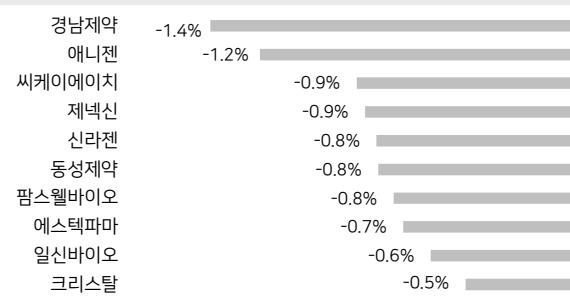
외국인 매수 강도 상위 10개 종목



기관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외국인 매수 강도 하위 10개 종목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간 동향

글로벌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M	3M	YTD
NASDAQ	7,261.1	0.7	4.7	9.9	5.2
NASDAQ BIO	3,522.9	0.7	5.3	0.1	5.0
MSCI 글로벌헬스케어	236.7	0.7	3.7	3.9	4.0
MSCI 미국헬스케어	275.2	0.7	3.5	5.3	5.0
MSCI 유럽헬스케어	177.7	0.2	0.7	-3.7	0.6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제약/바이오 지수

지수	종가	Performance(%)			
		1D	1M	3M	YTD
KOSPI	2,496.4	0.3	1.4	0.9	1.2
의약품	13,774.0	4.5	18.3	20.0	11.4
의료정밀	2,988.2	0.3	0.0	-0.9	-1.3
KOSDAQ	873.1	2.4	14.8	31.0	9.4
의료,정밀기기	1,725.3	0.6	6.2	10.1	3.1
제약	13,237.3	7.6	44.4	78.3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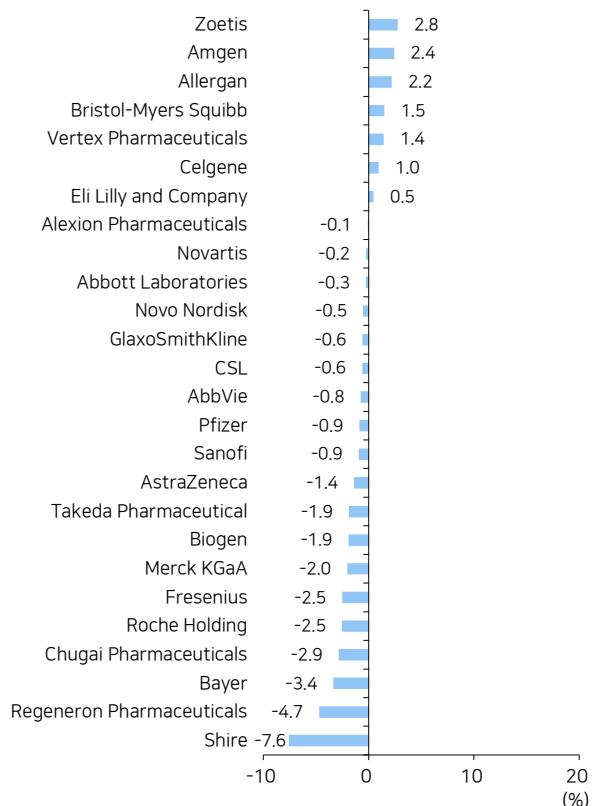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Top 25 제약/바이오 사

종목	시가총액 (조원)	Performance(%)				PER		PBR		ROE	
		1D	1M	3M	YTD	18E	19E	18E	19E	18E	19E
Johnson&Johnson	416.3	0.7	2.9	6.8	4.3	18.6	17.4	4.7	4.3	27.6	26.8
Novartis	240.2	0.7	0.0	0.0	1.8	16.3	15.1	2.7	2.6	17.0	18.0
Roche	232.5	0.5	1.7	0.4	-0.3	15.1	14.5	6.4	5.6	46.8	41.1
Pfizer	231.5	-0.1	0.2	0.6	0.9	13.2	12.8	3.8	3.8	28.5	31.3
AbbVie	170.3	1.1	4.2	10.7	3.8	15.3	13.0	15.2	10.3	123.0	94.5
Merck	169.9	1.8	4.7	-7.5	4.2	14.4	13.7	4.4	4.3	25.8	28.6
Novo Nordisk	145.7	-0.6	0.0	13.0	0.6	20.5	19.1	14.9	13.5	75.5	73.2
Amgen	142.8	1.7	5.8	1.1	6.4	14.5	14.1	3.7	3.4	27.1	22.6
Sanofi	120.0	1.1	-0.1	-11.9	2.5	12.8	11.9	1.5	1.5	12.2	12.6
Bayer	111.9	-0.8	0.0	-11.1	0.9	14.7	13.6	2.4	2.2	15.7	15.8
Bristol-Myers Squibb	109.3	0.5	1.1	-3.8	2.5	19.5	16.4	6.1	5.6	31.8	34.2
Abbott	108.9	-0.2	7.5	7.7	3.1	20.8	18.5	3.1	2.9	22.1	23.3
Gilead Sciences	109.7	-0.1	6.3	-2.6	10.3	11.7	12.0	4.0	3.8	32.3	27.7
Eli Lilly	101.8	0.7	0.6	0.5	3.0	18.7	17.1	6.0	5.5	29.7	29.3
GlaxoSmithKline	97.6	1.7	4.8	-10.8	2.3	12.7	12.2	40.8	26.4	213.1	126.1
AstraZeneca	94.6	0.0	5.1	0.1	0.2	19.2	17.3	6.5	6.6	19.5	26.0
Celgene	88.7	1.4	-2.1	-22.3	1.6	12.1	10.3	5.4	3.8	57.8	48.5
Biogen	75.5	0.9	3.8	-0.5	5.5	14.0	13.3	4.2	3.4	34.6	31.4
Allergan	62.2	-0.6	3.0	-14.3	7.6	11.4	10.6	0.9	0.9	3.5	4.4
CSL	53.8	0.8	0.7	3.0	0.4	32.0	27.7	12.5	10.1	43.3	39.8
Shire	47.4	-1.8	-2.8	-6.9	-8.2	9.1	8.3	1.3	1.2	15.1	15.3
Merck KGaA	51.2	-0.7	0.9	-5.2	1.7	15.0	13.7	2.5	2.3	15.9	15.7
Takeda	48.7	-1.5	2.7	5.0	0.7	30.3	33.9	2.6	2.6	8.5	7.3
Fresenius	46.7	0.1	1.1	-6.0	0.3	18.3	16.3	2.3	2.1	12.8	13.0
Regeneron	41.9	-0.4	-4.2	-17.2	-2.4	21.5	18.4	5.2	4.3	24.7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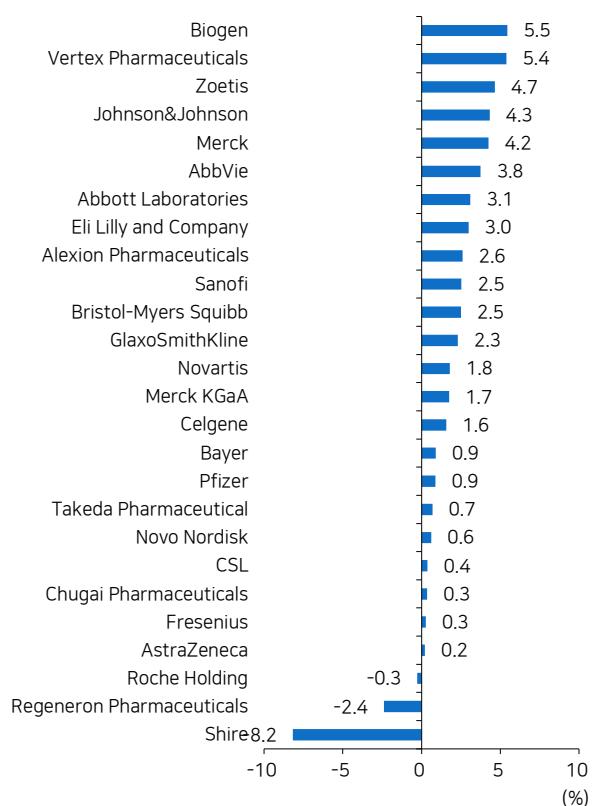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1주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YTD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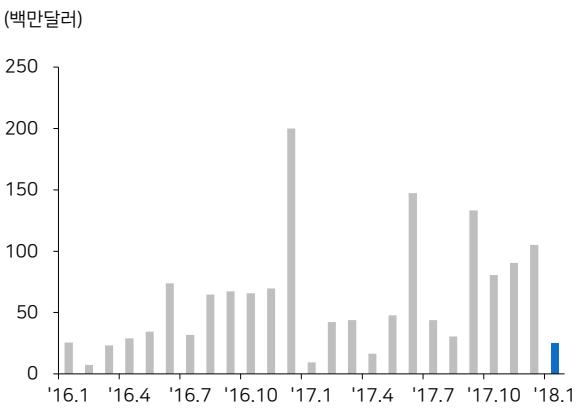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Numbers] 주요 제품 수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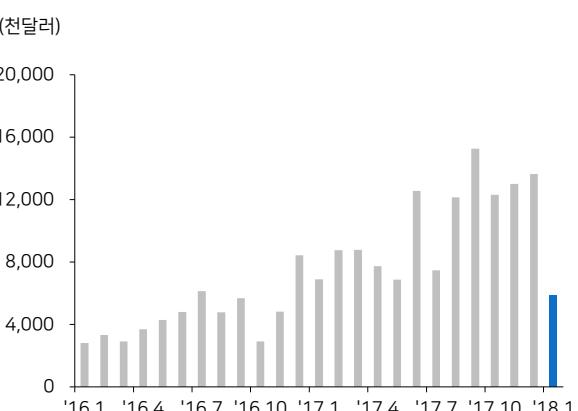
면역관련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추정)

기간	수출금액(백만달러)	중량(톤)	YoY(%)	QoQ(%)
'17.1	9.30	1.70	-63.7	-85.9
'17.2	42.28	6.27	483.1	-39.2
'17.3	43.73	7.33	87.9	-78.1
'17.4	16.53	3.00	-43.0	77.8
'17.5	47.70	8.62	39.0	12.8
'17.6	147.29	20.39	99.7	236.8
'17.7	43.78	7.76	38.1	164.9
'17.8	30.40	6.79	-53.1	-36.3
'17.9	133.35	24.32	98.4	-9.5
'17.10	80.47	15.73	22.3	83.8
'17.11	90.41	15.12	30.1	197.4
'17.12	105.04	21.09	-47.5	-21.2
'18.1	24.91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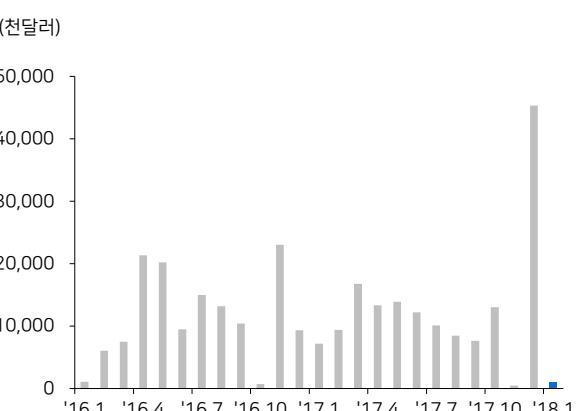
의약품 기타 (보툴리눔 특신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kg)	YoY(%)	QoQ(%)
'17.1	6,891	6.89	144.44	136.15
'17.2	8,776	8.78	162.58	81.76
'17.3	8,781	8.78	201.12	4.06
'17.4	7,738	7.74	109.40	12.29
'17.5	6,878	6.88	59.80	-21.63
'17.6	12,551	12.55	160.93	42.94
'17.7	7,477	7.48	21.86	-3.36
'17.8	12,148	12.15	153.51	76.63
'17.9	15,264	15.26	168.22	21.62
'17.10	12,306	12.31	321.71	64.57
'17.11	13,021	13.02	169.70	7.19
'17.12	13,644	13.64	61.70	-10.61
'18.1	5,893	5.89		



기타 화학공업제품 (Sofsbuvir 추정)

기간	수출금액(천달러)	중량(kg)	YoY(%)	QoQ(%)
'17.1	7,182	8,221	566.2	841.3
'17.2	9,394	19,252	54.4	-59.2
'17.3	16,769	15,463	122.7	79.1
'17.4	13,374	32,932	-37.3	86.2
'17.5	13,941	23	-31.1	48.4
'17.6	12,212	15,364	28.4	-27.2
'17.7	10,122	5,014	-32.4	-24.3
'17.8	8,470	24,535	-35.7	-39.2
'17.9	7,676	7,499	-26.5	-37.1
'17.10	13,071	7,911	1,613.1	29.1
'17.11	495	20,117	-97.9	-94.2
'17.12	45,352	49,452	384.3	490.8
'18.1	1,146	5,578		



주: '18.1데이터는 ~14일까지의 잠정치

자료: TRAS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이태영)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 2장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96.1%
중립	3.9%
매도	0.0%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